



미래 유망산업 'e러닝'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

차세대 e러닝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사이버교육 전문 전시회인 'e러닝 엑스포 2004'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가졌다. 원격·가상교육, 국내·외 사이버대학, 학내망 서버공급업체 등 26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개막 첫 날부터 관련업체와 시민 등 2,000여명이 찾는 등 e러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e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일컫는 말로 최근 수요자 중심 학습, 지식대중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 91억달러에 이어 올해 13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고, 국내시장은 올해 2

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시장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능시험과 자격증 등 공·사 교육 분야에 치우쳐 있다. 외국에서 기업이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e러닝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말과 통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우리나라가 갖춘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망과 교육열, 최신 기술과 제품에 열광하는 성향도 전망을 밝게 한다.

국내외 e러닝 산업 한눈에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이러닝산업협회와 경향신문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관한 '2003 이러닝 엑스포'가 지난달 15~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됐다.



지난 15일 개막식에는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송자 한국사이버대학 총장, 이상희 사이버교육학회 회장, 장일홍 이러닝산업협회 회장, 김충일 경향신문 기

획본부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콘텐츠수상사례, e러닝 기업접목 수상 사례 등에 관한 세미나도 함께 열렸으며, e러닝 시상식에서는 삼성생명·삼성화재, KDI국제정책대학원, 정철사이버스쿨이 우수 콘텐츠부문을 받았다. 알렉스아이티, 디유넷, 비알코리아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총 100부스 규모로 한국방송공사(EBS),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사이버 대학들과 미디어피아, 디유넷 등 e러닝 솔루션 개발업체 및 서비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 최신 e러닝 콘텐츠, 솔루션, 첨단교육기자재 등을 선보였다.

'해외우수 e러닝기업관'에서는 독일, 일본, 대만,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 기업도 만나볼 수 있었고, 사이버대학과정, 외국어교육, 리더십 개발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도 전시됐다. 또 온라인영어게임경진대회, 영어실력 자가진단평가 등 체험형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e러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15일에는 부대행사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e러닝과 SC36표준화'와 'e러닝 산업진흥과 정책'을 주제로 e러닝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장일홍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은 "e러닝이 미래의 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홍보, 정보교류 기회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전시회가 e러닝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